

광양시 “미식·예술·관광 한 곳에서 즐기세요”

市, '수산물유통센터' 여행지 추천
킹크랩·각종 활어 등 해산물 다양
이순신대교 자태·광양만 노을 장관
‘시간의 울림’ 미디어아트 전시도

광양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광양수산물 유통센터가 미식과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생동하고 있다.

광양시는 2일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바다의 맛과 예술의 빛, 노을빛 풍경, 빛나는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완성지로 광양수산물유통센터를 추천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킹크랩과 각종 활어

등 다채로운 해산물의 미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시간의 울림: 예술로 이어지는 공명’을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양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일환으로 이탈리아 미디어아트그룹 스쿼터스 랩과 비주얼 아티스트 빈철히 마르실리아, 국내 작가 이경훈, 유지원 등이 참여했다.

‘시간의 울림’을 주제로 전통과 기술, 동서양의 미학을 융합해 감각적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오는 4일까지 시간과 공간이 공명하는 예술적 여정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특히 집 모양의 설치작품에는 일상의 풍경과 인간의 감정이 디지털 영상으로 투사돼, 예술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독특한 감동을 전한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활어, 선어, 젓갈, 건어



광양수산물유통센터. <광양시 제공>

물 등 다양한 수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며, 킹크랩, 대게, 바닷가재 등 고급 수산물도 시세를 공개해 정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고른 활어를 현장에서 손질해 포장하거나 2층 상차림 식당에서 바로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층 식당의 1인당 상차림비는 5천원이고, 다양한 메뉴와 어린이 놀이방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식당 창가에는 이순신대교의 웅장한 자태와 광양만의 노을, 불빛으로 수놓인 야경이 시간대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광양의 미(美)와 미식(味)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미식과 예술, 그리고 빛나는 야경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한 곳에서 광양의 맛과 멋, 감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며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기 좋은 계절, 광양만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넓은 무료 주차장을 갖춰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성읍·성산지구 침수 피해 해결 탄력

郡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빗물펌프장 3곳 신설 2027년 착공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시까지, 성산지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국비 등 사업비 84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장성읍시까지(장성지구)와 성산지구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 하수도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겪으며 생활권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장성군은 해당 지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갖춰 환경부에 정식 요청했다. <사진>

환경부는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침수 피해 정도,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 달

30일 장성군 포함 전국 15개 지자체, 17개 지역을 위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

군은 총사업비 843억원을 투입해 빗물 배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빗물펌프장 3곳을 장성읍 시가지·성산지구에 신설할 계획이다.

빗물이 배출되는 ‘우수관로’는 직경을 넓히고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등 총 9.5km 규모에 걸쳐 대대적인 개량에 나선다. 다음 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2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장성읍시가지와 성산지구 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상 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군민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개최

6일 국악전수관서…주민 80명 대상

곡성군은 “오는 6일 곡성국악전수관에서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4일까지 사전에 곡성국악전수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공연은 한진옥 선생의 예술세계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연다. 영상에는 한진옥 선생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선생이 생애를 보냈던 육과면의 모습이 담겨 있어 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연에서는 한진옥 선생의 대표작

‘호남검무’, 김덕숙 명무의 ‘이매방류 살풀이춤’, 전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강산제 심점가 보유자 김향순 명창의 ‘흥보가’ 한 대목, 곡성 국악전수관 수강생들의 ‘화선부’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대금 양한호, 아쟁 박장성, 장구 공도순 등도 함께해 풍성한 국악의 맛을 더한다.

명무 한진옥은 육과 출신으로 명창 장판개에게 입문해 소리를 배우고 명무 이장선, 신갑도 등 당대의 저명한 예인들에게 승무, 바라춤, 검무, 범패무 등을 배웠다.

곡성 국악 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국악전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영필 기자

여수시 지역상품권 1천355억 발행…역대 최대

소비 진작·소상공인 매출 증대 견인

여수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천355억원으로 확대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87억원보다 약 5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할인 금액도 307억원에서 375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설 명절(1월)과 가정의달(5월)에 카드형 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총 200억 원을 유통했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국비 10%를 추가 반영해 8월에는 20%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 175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시중에 풀었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3%로 한시 상향해 355억원 규모의 판매를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지역 간 소비 불균형 해소와 소외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착한가격업소(99원)와 여론·진남·흥국상가 등 1천986곳을 대상으로 5% 현장 추가할인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은 국·도비 확보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 노력의 결과로,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 유자의 향긋한 매력 담은 라면 맛보세요”

6-9일 고흥유자축제서 시식 행사

고흥군은 오는 6-9일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 축제’에서 지역 특산품인 유자를 활용한 특별 시식행사 ‘유자라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유자라면은 고흥 유자의 향긋한 매력을 라면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서울 한강공원 시식행사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 번 먹으면 잊기 힘든 라면’으로 입소문을 타고 돌아왔다.

축제 현장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자라면을 맛볼 수 있는 시식 부스가 마련된다.

유자라면은 고흥산 유자엑기스를 넣은 닭고기 육수로 만들어져 첫 숟가락부터 상큼함이 입



지난해 고흥유자축제에 마련된 유자라면 체험 부스. <고흥군 제공>

안을 감싸고 깊은 국물 맛이 이어진다. 유자 특유의 산뜻함과 라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기존 라면과는 전혀 다른 ‘고흥만의 한 그릇’을 경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유자를 활용한 유자김밥과 함께 유자라면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한층 더 풍성하게 자극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에서 유자라면이 처음 공개됐을 때 큰 관심을 받았고 서울 한강공원 행사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며 “이번 축제에서도 유자라면을 통해 고흥 유자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람하기, 유자천국’을 주제로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에서는 ▲유자청 경매 ▲유자청 담기 체험 ▲유자스와 ▲고흥 9미 음식페스티벌 ▲유자밭 힐링시어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68명의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제81기 농업인대학 졸업식

스마트농업 등 3개 과정 68명 수료

담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제18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철원 군수를 비롯한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김나빈아 농업기술센터 소장, 68명의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상 표창, 축사, 졸업장 수여, 졸업생 소감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18기 농업인대학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 딸기’, ‘농창업’, ‘청년농업인’ 등 3개 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생들은 총 51회, 214시간의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팜 기술과 농창업·마케팅 전략,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익혔으며, 현장 견학과 실습을 함께 진행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졸업식에서는 스마트팜기반 배원주씨와 농창업반 김현배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스마트 딸기반 김성수씨와 청년농업인반 신효정씨가 군수상을 받았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

31종 58대 보유…교육·실습장 갖춰

화순군은 “최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구북규 화순군수, 오형열 군의회 의장, 박용철 전남도농업기술원장,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식량원예과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사진>

춘양분소는 춘양면 석정리 112번지 일원 8천315㎡ 부지에 2층 규모 연면적 980㎡로 신축했으며 임대용 농업기계 31종 58대(관리기 등)를 비치했다.

또한 30명 수용의 교육실과 2천㎡ 규모의 농업기계 실습장을 갖춰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다.

이번 춘양분소 개소로 화순군은 13개 읍·면에 37개소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다.



농업인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사업소에서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임대하거나, 농경지까지 배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춘양분소 개소로 농업기계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임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